

era, and the concept was borrowed to develop the operational strategy of the Children's Museum.

Children's Museum as a Place for Stress Relief

The key idea of the project to create the Children's Museum at the Chuncheon National Museum was to establish a place where children find healing through play without "prohibition and control" and "tasks and evaluation." Therefore, we hope that the museum will be a place where children can relieve stress. That is, we hope that it will be a place of healing not only for children suffering digital over-immersion but for all children. It must be noted that the contents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the traces of our thinking process, not the perfected final results. Any different opinions will be taken as advice, and agreement as welcome encouragement.

Keyword

Place of Healing, Healing space, Third Place, Children's stress, Platform for play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 소개

최정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선행 연구

III.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의 현황과 특징

I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 소개

최정아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리건판 및 당시 조사된 발굴품과 소장품 등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초기 한국 고고학 및 미술사, 역사학 등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져 그동안 박물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리하여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1년부터 ‘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 공개 사업’으로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에 공개된 근대지도이다. 1997년에 발간된 『光復以前博物館資料目錄集』¹⁾의 ‘지도’ 항목으로 수록된 것으로, 전체 3,603장 중 중복을 제외한 1,546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내기관에 소장된 근대지도 가운데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수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지도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I. 선행 연구

이번에 소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는 대부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지형도이다. 한일병합 이전 일본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한반도 주요 지역을 비밀측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형도를 제작하였다.²⁾ 해방 후 이 지도들은 우리나라 지형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근대지형도는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법이 도입되어 지형의 실제 형태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원지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도를 ‘근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제작한 지형도’라는 의미의 ‘외방도外邦圖’라 부르는데, 자료가 방대하여 2000년대 초에 들어서야 비로소 목록이 완성되었다.³⁾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소장된 자료가 먼저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국내 자료가 공개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형도의 종류와 소장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사⁴⁾부터 발달 과정⁵⁾, 지명⁶⁾, 범례⁷⁾, 정확도⁸⁾ 등 점차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지형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다. 패전 후 많은 양이 소실되거나 해외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료들이 국토지리원國土地理院·자원과학연구소資源科學研究所·도호쿠대학 지리학교실東北大學地理學教室·오차노미즈 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등 일본 내 여러 기관으로 분배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 유출된 자료를 AMS(Army Map Service)에서 보관하다가 현재는 의회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 그 밖에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도 우리나라의 근대지형도를 보유하고 있다.⁹⁾

국내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00년대에 지도류를 정리하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경성제국도서관의 분원이었던 종로도서관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¹⁰⁾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1:50,000 및 1:10,000 축척의 〈광복 이전지형도〉를 제공하고 있다.¹¹⁾

2 박선영, 「장서각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 고찰」(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 미즈노 슌페이(水野俊平),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지명의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 『地名學』17(2011), p.109.

4 박선영,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활용」(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양운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용석,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 지형도의 성격과 활용」, 『생활문화연구』7(2002).

5 남영우, 「일제 참모본부 間諜隊에 의한 兵要조선지리 및 한국근대지도의 제작과정」, 『문화역사지리』4(1992); _____, 「舊韓末과 日帝强占期の 韓半島 地圖製作」, 『한국지도학회지』제7권 제1호, 한국지도학회(2007); _____, 「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44-6, 대한지리학회(2009).

6 미즈노 슌페이(水野俊平), 앞의 논문(2011).

7 범선규, 「1:50,000 지형도의 상전화된 범례와 그 변천」, 『한국지도학회지』제3권 제1호(2003).

8 김감영,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의 지형 재현 정확도 평가」, 『한국지도학회지』제18권 2호(2018).

9 박선영, 앞의 논문(2018) pp.104-105.

10 박선영, 앞의 논문(2018), p.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1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1 國立中央博物館, 『光復以前博物館資料目錄集』(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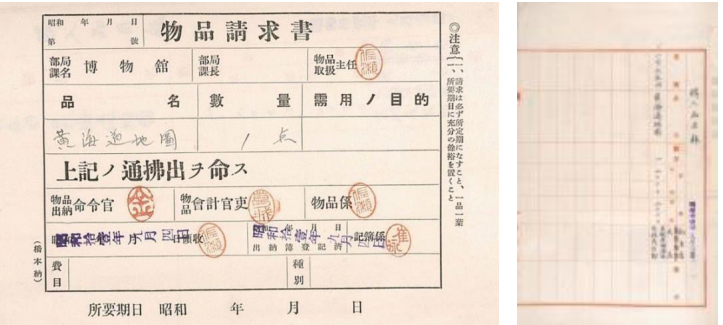
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의 현황과 특징¹²⁾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지도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해방 후 이관 받은 것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유적 발굴 및 조사, 문서 작성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수의 지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도엽에 복수의 지도가 확인된 것은 부서 혹은 시기에 따라 여러 세트를 구비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당수의 지도 하단에는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 陸地測量部’ 압인이 찍혀있고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조선총독부박물관장朝鮮總督府博物館章’ 및 개인소장자의 신분과 이름 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도의 소장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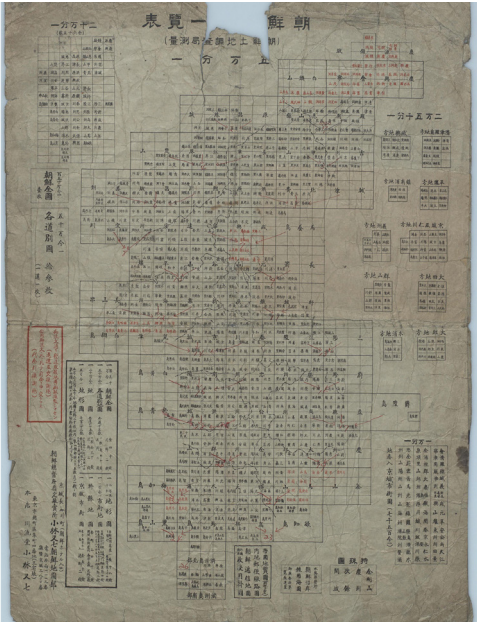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문서 중에는 지도 구입을 위한 ‘물품청구서物品請求書’나 ‘발행지형도기증목록發行地形圖寄贈目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구입이나 기증 등 지도를 소장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도 2). 또, 유적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고적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도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인장들



도 2. ‘쇼와 9-19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중 황해도지도 물품청구서(좌) 및 구입품목록(우)



도 3. 조선전도일람표(소장처: 종로도서관)

도 3. 조선전도일람표(소장처: 종로도서관)

도 3은 조선전도일람표(소장처: 종로도서관)로, 다양한 지형도의 목록을 하나로 정리한 일종의 카탈로그이다(도 3)¹³⁾. 중앙에는 1:50,000 지형도의 전체 도엽을 한반도 지형에 맞추어 표시하고, 그 주변에 1:200,000, 1:25,000, 1:10,000, 조선전도(1:1,500,000), 각도별도(1:500,000) 등의 지형도 목록을 적었다. 또 <조선연안잡용해도朝鮮沿岸雜用海圖>, <제국지질도帝國地質圖>, <내지우편선로도內地郵便線路圖>, <조선체신지도朝鮮遞信地圖> 등의 특수 주제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표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의 현황

1:500,000 이상	1:200,000	1:50,000	1:25,000	1:10,000	기타
12건 12장	52건 52장	(1차) 144건 144장 (2차) 332건 332장 (3차) 805건 805장	102건 102장	48건 52장	35건 47장

12 Ⅲ장에서 제시하는 축척별 지형도의 특징 및 표 2~4의 일부는 박선영의 박사학위 논문[박선영, 앞의 논문(201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jnm_001) 2021. 2. 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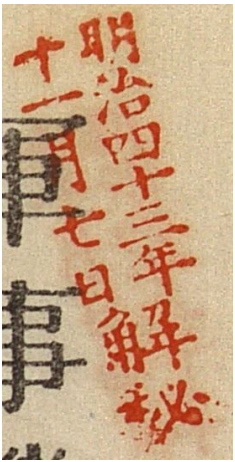
1. 1:50,000 지형도

1:50,000 지형도는 19세기 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밀리에 측량하여 제작하기 시작한 지도로, 제작 시기에 따라 1차 지형도, 2차 지형도, 3차 지형도로 구분한다. 1~3차 지형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측량 방식으로, 1차 지형도는 보측歩測, 목측目測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2차 지형도부터는 삼각측량 방식이 도입되어 지도가 더욱 정밀해졌다.

1차 지형도는 일본이 비밀리에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측도나 제판연도 등의 정보가 고의적으로 삭제되어 군용비도軍用秘圖, 약도略圖 등으로도 불린다. 2차 지형도는 한일병합 이후 처음으로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제작한 지형도로,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되었다. 3차 지형도는 한반도의 삼각점망을 이용해 제작한 지형도로 현재 공개된 대부분의 근대지형도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부터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한 컬러 지도가 생산되었고, 필요에 따라 수정측도, 철도보입鐵道補入 등의 수정지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50,000 지형도는 1,281건 1,281장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도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1~3차 지형도가 모두 포함되는데, 3차 지형도는 한반도 전 지역의 도엽이 고르게 확인되는 반면, 1차 지형도는 한반도 북부지역, 2차 지형도는 중부 및 남부지역의 도엽만 보인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건립 당시의 지형도 수급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추정된다. 즉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된 1915년은 3차 지형도가 막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1차 지형도와 2차 지형도만 확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중 삼각측량으로 정확성이 높아진 2차 지형도가 우선적인 구비대상이었을 것이며, 2차 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은 한반도 북부는 1차 지형도로 보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에는 3차 지형도를 추가 소장하였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0,000 지형도의 경우 보통 오른쪽 하단에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 陸地測量部’ 압인을 찍고, 오른쪽 상단에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적인을 찍은 것이 많다. 3차 지형도의 경우 하단 왼쪽에 청색스탬프로 네 자리의 도엽 일련번호를 찍거나, 하단 오른쪽에 세자리 숫자와 도엽명을 수기로 적어 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한 것도 확인되었다.



도 4. 1:50,000 1차 지형도의 ‘明治四十三年十一月七日解秘’ 인장

표 2. 1:50,000 1차 지형도의 특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비교

	1차 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총 도엽	484도엽	136도엽
수량	—	144건 144장
측도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	1895, 1900, 1903, 1906년 (미기재 절반)
제판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	1898~1914년 (미기재 절반)
인쇄 · 발행	1911~1916년	1911~1913년
색채	흑색단색	흑색단색
제작범위	한반도 전역	한반도 북부
기타	한일병합 전 비밀측량	—

2) 2차 지형도

2차 지형도는 총 342도엽 중 332도엽이 확인되어 대부분의 도엽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차 지형도는 3차 지형도가 제작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0,000 2차 지형도는 제판 및 인쇄 · 발행연도가 2~3년간으로 더 짧다(표 3).

2차 지형도는 1차 지형도에 비해 도곽 밖에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도곽 상단에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 인접지역 색인도를, 하단에는 축척을 표기하였다. 또 도곽 왼쪽에는 각종 발행연도와 범례 · 저작권 소유자 및 발행자 등을, 오른쪽에는 도엽번호 · 도식 등에

대한 정보를 넣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이후 지형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이 시기에 기본적인 지형도의 형식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50,000 2차 지형도의 특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비교

	2차 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총 도엽	342도엽	332도엽
수량	—	332건 332장
측도	1909~1911년	1909~1911년
제판	1912~1916년	1912~1914년
인쇄·발행	1912~1916년	1912~1914년
색채	흑색단색	흑색단색
제작범위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역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역
기타	1차 지형도와 3차 지형도의 중간 단계	—

3) 3차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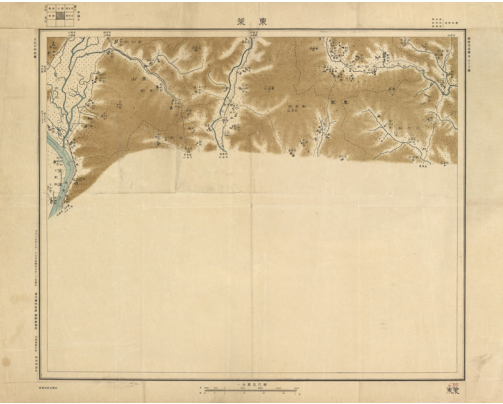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3차 지형도는 805건 805장이며, 총 727도엽 중 718도엽이 확인되었다. 3차 지형도는 최초 제작 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늦은 시기까지 발행되어 하나의 도엽에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3차 지형도의 제작 시기부터 컬러지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하천이나 바다 등 물과 관련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2색 지도, 여기에 도로를 붉은색으로 표시하면 3색 지도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3차 지형도는 흑색단색, 2색, 3색이 모두 존재하며 2색 지도와 3색 지도 사이에 선후관계는 보이지 않는다(표 4).

3차 지형도 중에는 ‘조선교통도朝鮮交通圖’라 하여 등고선 없이 지형의 고저를 음영으로 표시

표 4. 1:50,000 3차 지형도의 특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비교

	3차 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총 도엽	727도엽	718도엽
수량	—	805장 805건
측도	1914~1918년	1914~1918년, 수정측도(1차, 2차, 철도보입)
제판	1915~1918년 1925~1926년(교통도) 등	1915~1921년
인쇄·발행	1916~1919년, 이후 계속 수정지도 발행	1915~1939년
색채	흑색단색, 2색, 3색	좌동
제작범위	한반도 전역	좌동
기타	광복 전까지 수정지도 발행 일부 교통도	—

하고, 도곽 밖에 범례, 제판 및 인쇄·발행 연도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한 지형도도 포함되어 있다. 경원·회령·종성·함흥·원산 등 한반도 동북지방 및 동해 일부, 중부 서해의 웅진과 백령도, 부산·마산·목포·흑산도 등 남해 일부가 그 예로 주로 도서 해안지역이 교통도로 제작되었다. 또 원산 북부와 남부, 동래, 김해 등의 도엽은 의도적으로 도곽 안을 일부 생략하였는데, 이는 군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5).



도 5. 조선교통도(‘동래’ 1:50,000 3차 지형도)

2. 1:500,000 이상의 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500,000 이상의 대축척 지형도는 〈조선백오십만분일도朝鮮百五十萬分一圖〉 1건,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방을 대상으로 한 〈동아여지도東亞輿地圖〉 1건 및 1:500,000 도별지형도 10건 등 총 12건 12장이다.

〈조선백오십만분일도〉는 1918년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편집·제판한 것을 1924년 수정하여 발행한 조선전도이다. 하천 등 수계는 파란색, 도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산의 고저는 녹색 계열로 음영을 준 컬러지도이다. 검은색 펜으로 일부 도시를 표시하고 강조하거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여백에는 메모를 남기는 등 당시 사용 흔적이 많이 확인된다.

〈동아여지도〉는 1904년 제판한 것을 1909년 수정하여 발행한 1:1,000,000 지형도이다. 도엽명은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충주, 수원, 전주, 진주, 인천 등 주요 도시명을 적었다. 앞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수계는 파란색, 도로는 붉은색, 산의 고저는 녹색으로 표시한 컬러지도이다. 전라남도 해안 일부가 생략되었으나, 경성 이하 한반도 중부와 남부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도곽 밖 오른쪽에는 ‘동아여지도 서 제2행 북 제1단 남부東亞輿地圖 西第二行北第一段南部’라고 적혀있어 동아시아 지형도의 일부로 추정된다.

각 도道의 지형을 담은 도별지형도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0건이 확인된다. 축척은 1:500,000이며 1918년 임시토지조사국이 편집·제판하여 1920년에 인쇄·발행하였다. 비교에 따르면 이 지형도는 해안선·하천·철도·도부군면의 경계·도읍·동리를 표시한 제1종도와 여기에 주요 도로를 더한 제2종도, 제2종도에 지형을 추가한 제3종도 등 세 유

형으로 구분되는데, 강원도·전라남도 등은 제1종도, 경기도·경상북도 등은 제2종도, 함경북도·평안북도는 제3종도로 지역에 따라 유형이 각기 다르다. 지형도의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이 많으나, 경기도는 가로로 길고 함경북도는 세로로 길어, 실제 지형을 반영하여 지형도의 크기도 다르게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도별지형도와 다소 성격이 다른 도지도道地圖도 확인된다. 축척 1:400,000의 경기도, 1:600,000의 전라남도 지도는 도곽 없이 도의 윤곽과 시군의 경계를 표시하고 면畵 간의 직선 거리를 기재하였다. 또 〈강원도관내지도江原道管內地圖〉와 〈황해도관내도黃海管內圖〉는 각 군郡마다 색을 달리 표현하였다. 이러한 지도는 목적에 따라 도별지형도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 특수지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1:200,000 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총 65도엽 중 52도엽의 1:200,000 지형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 지형도는 1:50,000 지형도 16장을 편집한 것으로, 1918년에 제판하여 1920-1921년에 발행하였다. 수계는 푸른색, 도로는 붉은색, 등고선은 녹색으로 표현한 컬러지도이다. 도곽 왼쪽에 범례, 제판 및 인쇄·발행연도를 비롯하여, 해당 지도 제작에 사용된 1:50,000 지형도의 목록, 1:200,000 지형도의 전체 목록 등 다양한 정보를 넣었다(표 5).

대부분의 1:200,000 지형도에는 왼쪽 하단에 숫자가 남겨져 있는데, 최북단의 ‘경원’이 1이고 ‘육지도’가 64인 것으로 보아 북에서 남으로 도엽마다 번호를 매겨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리번호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은 것이 많으나, 연필로 직접 적은 것도 있다. 한편 일부 1:200,000 지형도는 도엽명 왼쪽에 ‘녹기문고장서지인綠旗文庫藏書之印’ 적인과 4자리 숫자 스탬프를 찍고 흰색 스티커를 붙여 별도의 숫자와 영문을 적어 놓은 것도 있어, 관리 방식이 다른 개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 陸地測量部’ 인장은 모두 찍지 않았다.

표 5. 1:200,00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총 도엽	52도엽(총 65도엽)
수량	52건 52장
축도	—
제판	1918년
인쇄·발행	1920-1921년
색채	컬러(4색)
제작범위	한반도 전지역
저작권	조선총독부
인쇄·발행자	인쇄자 羽田茂一, 발행자 小林又七
기타	정가 30전

4. 1:25,000 지형도

1:25,000, 1:10,000 등 소축척 지형도는 부산, 통영, 목포 등 항구나 경성, 평양, 대전과 같은 중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25,000 지형도 97도엽 중 청진나남지방 10도엽과 대전지방 ‘회덕’ 1도엽이 결실된 86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공개된 수량은 102건 102장이며 이 중 수정축도된 것은 53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소장된 1:25,000 지형도의 축도연도는 1914-1917년이고, 수정축도는 1회 1918-1919년 및 2회 1926년이다. 제판연도는 1915-1918년이며 수정축도된 경우 제판연도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쇄 및 발행연도는 1915-1921년 및 1929-1931년(2회 수정축도)으로 나타난다. 모든 지형도는 2색 내지는 3색을 사용한 컬러지도이고 정가는 8-20전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개정된 예도 많이 보인다(표 6).

지형도의 도곽 밖에는 오른쪽 하단에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 陸地測量部’ 압인을 찍었고, 일부는 오른쪽 상단에 ‘갑종甲種’, 하단에 경도經度 개정과 관련된 안내문을 청색 스탬프로 찍었다. 드물지만 1:200,000 지형도와 동일하게 ‘녹기문고장서지인綠旗文庫藏書之印’ 적인과 네자리 숫자 스탬프, 숫자와 영문을 적은 흰색 스티커가 세트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원소장처 및 관리처가 최소 2군데 이상으로 추정된다.

5. 1:10,000 지형도

1:10,000 지형도는 학교나 주요 관공서의 명이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형태를 반영한 시가지의 형태도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해당 지역의 세밀한 지형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10,000 지형도 45도엽 중 ‘청진’을 제외한 44도엽을 소장하고 있으며 공개된 수량은 48건 52장이다(표 7).

이 지형도는 대상 지역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세로나 가로가 길게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큰 도시는 2장 혹은 4장으로 분할 발행하였다. 분할 발행한 도엽은 ‘경성’(2종)과 ‘부산’, ‘평양’ 세

표 6. 1:25,00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총 도엽	86도엽(총 97도엽)
수량	102건 102장
축도	1914-1917년 (수정축도 1918-1919년, 1926년)
제판	1915-1918년
인쇄·발행	1915-1921년 (일부 1929-1931년)
색채	컬러(2색, 3색)
저작권	조선총독부
인쇄·발행자	육지측량부
기타	정가 8-20전(개정 정가)

도엽으로, 이 가운데 ‘경성(2장 분할)’과 ‘평양’ 도엽은 각각 경성 북부와 평양 서부가 결실되어 절반만 남아있다.

표 7. 1:10,00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특징

	소장지도
총 도엽	44도엽(총 45도엽)
수량	48건 52장 * 경성 2장/4장, 부산 2장, 평양 2장
측도	1915-1917년 * 수정측도 6건
제판	1916-1918년
인쇄·발행	1916-1926년 * 일부 1934-1936년
색채	컬러(4색이상)
저작권	조선총독부
인쇄·발행자	육지측량부
기타	정가 18-60전(개정 정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경성’ 1:10,000 지형도는 2종류로, 하나는 2장 분할의 컬러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4장 분할의 흑백지도이다. 전자는 북부가 결실되어 현재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만 남아있고, 후자는 청량리역, 왕십리역을 포함하여 전자보다 2배 가량 넓은 지역을 포함한다. 인쇄·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자는 1917년, 후자는 2회 수정측도하여 1922년에 발행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경성 지역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 기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지도에는 특정 주제나 지역을 강조하여 만든 다양한 주제도도 포함된다. 그 중에는 특정 지역의 관내도와 시가도를 비롯하여 <조선지질광상분포도朝鮮地質鑛床分布圖>, <체신지도通信地圖> 등도 확인된다. 특히 주요 유적 및 문화재의 위치를 표시한 ‘유적지도’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 및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일본,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담은 세계지도도 일부 소장되어 있다.

1) 관내도 및 시가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황해도, 강원도, 해남군, 청진, 진남포의 관내도와 군산 및 목포의 시가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일반 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로나 상가, 관청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다시 제작한 지도이다. <청진부관내도淸津府管內圖>, <진남포부관내도鎭南浦府管內圖> 등은 손으로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적었다.

이 지도의 성격은 일반 지형도와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31년에 제작된 1:10,000 축척의 <진남포부관내도>는 같은 축척의 ‘진남포’ 지형도와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축척 1:500,000의 <진남포근방교통략도鎭南浦近傍交通略圖>를 넣고 오른쪽 하단에 ‘범례’를

두었다. 그러나 <진남포부관내도>는 대상지역이 진남포 시가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로는 붉은색의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은행·시장·관공서·상점 등 시가지 내 주요 지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한눈에 진남포 시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징을 강조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도 6).



도 6. 진남포부관내도(좌)와 ‘진남포’ 1:10,000 지형도(우)

2) 유적지도

주요 문화재와 유적을 표시한 유적지도는 총 9건 9장이 확인되었다. 주로 지형도를 편집하여 밑지도를 만들고, 그 위에 유적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관련 보고서나 자료 제작을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군시대 고분배치도樂浪郡時代古墳配置圖>는 평양 대동강 남쪽에 위치한 낙랑 고분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이다(도 7 上). 축척은 1:10,000이며, 도곽 안에 도로, 산림, 민가, 하천 등 대략적인 지형만 그리고 그 위에 낙랑고분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낙랑고분은 목곽분木槨墳과 전곽분磚槨墳을 구분하여 목곽분은 주황색, 전곽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고분의 크기를 반영해 기호의 크기를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정백리 및 소석암동의 일부 고분에는 붉은색 로마자 번호가 붙여졌는데, 이는 1916년에 발굴한 고분의 번호를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고분의 연번은 1926년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과 노모리 겐野守健이 낙랑고분군의 배치를 재조사한 후 부여한 번호가 반영되어 있어, 지도의 제작 시기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¹⁴⁾ 고분 외에도 낙랑군치지 및 각종 유물출토지점, 전토취갱塹土取穴, 오야리 목곽분 발견지점 등 관련 유구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14 국립중앙박물관, 『平壤 石巖里 9號墳』,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30집(2018), pp.30-32.



도 7. 유적지도(상: 낙랑군시대 고분배치도, 하: 송도면고적도)

〈평양부근고구려유적도平壤附近高句麗遺蹟圖〉는 평양 지역의 지형도 위에 대성산성, 안악궁, 왕궁지, 내리서북총, 호남리사신총 등 고구려 주요 유적의 위치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유적지도이다. 도곽 하단에 축척, 상단에 지도명이 있고 오른쪽에 ‘地圖 第一’이라 적혀있다. 밑지도는 1:50,000 3차 지형도 중 ‘평양 동부’ 도엽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을 확장한 것이다.

〈송도면고적도松都面古蹟圖〉는 개성지역의 사지寺址, 누정, 비석 등 주요 고적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다(도 7 下). 산지는 초록색으로 표현하였는데, 고도 50m 이하는 연두색으로 연하게 칠하고 그보다 높은 산은 짙은 초록색으로 음영을 넣어 험준한 느낌을 주었다. 또 시가지는 연노랑 바탕에 붉은색 격자로 표시하고, 도로는 붉은색, 하천은 푸른색 선으로 그렸다. 전반적으로 일반 지형도의 도식을 벗어나 회화적 느낌이 강하지만, 도로나 철도의 형태, 성문·다리 등 주요 시설물의 위치가 ‘개성’ 1:10,000 지형도와 유사해 이를 참고하여 그려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개성군면지開城郡面誌』의 부도附圖로 1921년에 발행되었다.

그 밖에 〈고려능묘분포도高麗陵墓分布圖〉, 〈함흥군 및 인접지방 고성지 위치도咸興郡及隣接地方古城址位置圖〉 및 울산성 전투와 관련된 〈울산성추정도蔚山城推定圖〉, 〈일명양군 행동일람도日明兩軍ノ行動一覽圖〉, 〈울산성전투일반도蔚山城戰鬪一般圖〉 등의 유적지도도 있다.

3) 기타 주제도 및 세계지도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특정 주제를 지도로 표현한 주제도가 여럿 소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각파조선포교구역도基督教各派朝鮮布教區域圖〉는 American Methodist Episcopal North Mission, American Presbyterian South Mission, Canadian Presbyterian Mission 등 6개 교파의 조선 포교 구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비교에 의하면 이 지도는 1909년 9월 조선에 대해 주요 신교의 각 종파가 협정을 맺은 포교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3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반도 주요 도시의 우편선로 및 관련 기관을 표시한 〈체신지도遞信地圖〉, 주요 산과 하천을 그린 〈산계와 하계山系及河系〉, 한반도 남북 및 동서 단면의 형태를 그린 〈한반도 단면도〉 등도 존재한다.

한편 세계 여러 지역을 그린 세계지도도 소수 확인되었다. 〈최근세계대지도最近世界大地圖〉는 붉은 도곽 안에 전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도곽 밖 상·하단에는 주요 국가의 국기와 문장을 그려 넣었다. 도곽 밖 오른쪽에 적힌 정보를 통해 이 지도는 소년구락부少年俱樂部 제18권 제1호 부록으로, 1931년 1월 1일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국경 및 각 현의 경계를 표시한 〈동아대륙제국강역도東亞大陸諸國疆域圖〉, 중국 동북지방을 그린 〈만몽도滿蒙圖〉와 함께 〈동궁어성혼기념 일본교통 분현지도東宮御成婚記念 日本交通分縣地圖〉 其32 및 ‘누마즈[沼津]’, ‘조시[銚子]’의 1:50,000 지형도 등 일본 지도도 소장되어 있다.

I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및 관련 자료는 누리집을 통해 매년 공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에 공개된 1,546장의 근대지도는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된 것 중 가장 수량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나 유리건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지도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일반 지형도로, 유적 및 유물 연구에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지도는 당시의 지형과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자료로, 향후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및 각종 발굴보고서와 연계하여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지형도는 토지가 개발되기 이전의 원지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적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많은 고적조사에 근대지형도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에는 당시 조사자들이 남긴 메모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지도는 앞으로 유적과 유물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troducing the Modern Map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hoi Jungah*

Preserv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re various materials from the Museu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cluding documents, glass dry plates, and artifacts from a number of excavations and the museum’s collection at the time. These materials are important for the study of Korea’s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and have been made public online since 2011.

Among them, the maps released in 2018 are known to be the most numerous and diverse set of modern maps introduced in Korea so far. A total of 1,530 titles (1,546 maps) were made public, the majority being topographic maps made by the Japanese. They have been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scale: greater than 1:500,000, 1:200,000, 1:50,000, 1:25,000, and 1:10,000. There are also many other thematic maps.

The 1:50,000 scale topographic maps were first made by the Japanes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 move to secretly measure Korean territory. According to date of production, they are divided into stage 1, stage 2 and stage 3 topographic maps. The stage 1 maps were made based on pacing and visual measurement, but from stage 2 the maps became more accurate with introduction of the triangulation method of surveying. From stage 3, maps were made with more diverse scales such as 1:10,000 and 1:25,000.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collection of 1:50,000 scale maps includes

* Associate Curator, Archaeology and History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topographic maps from stages 1 to 3. The stage 3 maps have map sheets covering the whole country evenly, while the stage 1 maps cover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tage 2 maps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This difference in the regions covered is presumably related to the time the Museu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as established. When the museum opened in 1915, the stage 3 maps had not yet been produced. Stage 2 maps of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had been made but as none of them covered the northern regions stage 1 maps were used as referenc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lso has topographic maps of various other scales, including a 1 to 1.5 million scale map of Joseon, and provincial maps on a scale of 1:500,000, 1:200,000, 1:25,000 and 1:10,000.

Some of the museum's modern maps are maps of historical sites that indicate the location of relics and remains. Made after editing a general topographic map for the base map and ad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afterwards, some examples are "Distribution Map of Ancient Tombs from the Nangnang Era," "Map of Goguryeo Sites Near Pyongyang," "Map of Historical Sites in Songdo-myeon," and "Distribution Map of Goryeo Tombs." These maps wer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survey of historical sites conducted by the Museu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nd hence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Japanese at that time.

As such, the modern maps preserv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study of maps and geography of the time, but also for the study of archaeology, history, art, and other fields concerning the museum. Modern topographic map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re particularly important as materials that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around historical sites as they reflect the original terrain before the land was developed. Also, as some of the maps contain remarks left by those surveying the historical sites or others who used the maps, in the future they should be studied with the documents and historical research materials of the Museum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is regard, the modern map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re anticipated to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historical sites, and artifacts.

Keyword

modern map,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Japanese colonial era, topographic map, map of historical sites